



윤형(장신대)

1. 들어가는 말

최근 우리 사회를 뒤흔드는 이슈(issue)는 바로 노동문제이다. 기업에서 발생하는 사용자의 노동자 차별 대우, 삶의 여유를 갖기 위한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이 그러하다. 정말 사람은 노동하지 않고 살 수 없다. 인간에게 노동(일)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있을까? 노동의 정의에²⁾ 따라 약간 다르겠지만

1)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5B5A07919232)

2) REFA(노동 시간 조사 위원회), *Methodenlehre des Arbeitsstudiums Teil I* (München: Hanser, 1973), 14. 노동이란 물질 또는 정신적인 생산물의 창조, 생산, 변환, 분할 및 그 활용과 관련된 일련의 연속적인 절차를 수행하는 행위다. 즉 노동이란 그 주체가 목적달성을 위해 당면과제를 수행하는 육체적-정신적 활동이다. 이렇게 노동은 자기보존이라는 주요 목적을 위해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환경을 통제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 한편 경제학에서는 인간을 경제인(Homo Economicus) 모델에 따라 파악하는데, 그에 따르면 경제적 동기가 사람의 행동을 좌우하는 주요원인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일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또한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나름대로 일을 하며 살아간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도 자신에게 가장 좋은(적합한) 일(직업)을 찾기 위해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문제를 갖고 고민한다. 하지만 그 일의 선택은 자신의 적성보다는 남이 보는 시선 및 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우리의 시류이기도 하다. 그러다보니 정작 직업을 찾는 곳에서 심각한 병목현상이 발생한다. 이보다 더 심한 자원낭비가 있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같은 현상이 반복된다. 오히려 소수의 질 높은 일 자리를 놓고 과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경쟁하는 실정이다. 이 딜레마적인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질문에 고민을 갖고 본 논문을 통해 구약 성서적 관점에서 상대적인 대안을 마련해보고자 한다. 즉 구약성서가 노동의 가치 및 그 인식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고찰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기술적(경제적)이라기보다 인식론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본 논문은 구약 성서에서 노동과 관련된 본문에 유의하면서 노동의 정체성 문제, 그리고 노동 주체와 객체와의 관계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노동의 가치 및 인식에 대해 신학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구약 성서에서 노동이 어떤 본질을 갖고 있는지 노동자(인간), 일터(공간), 쉼(시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렇게 노동과 관련하여 세 부분을 분석하여 그 신학적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구약 성서에서 노동이 어떤 본질적인 의미와 가치를 지녔는지 알 수 있다. 본문분석과 관련하여 성서를 해석하는 과정에서는 주제와 관련된 어휘에 관심을 두었으며, 그 문맥을 이해하는 과정에서는 정경적인 관점을 갖고 접근하였다. 즉 역사비평적인 관점보다는 공시적으로 과거 모든 전승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현재의 최종 본문을 정경으로 수용하는 정경적인 관점을 견지하고자 한다.

2.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한편 사람들은 일하기 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일에서 해방되고 싶어 한다. 이것은 노동하는 인간의 딜레마이다. 노동을 하면서 이런 긴장이 끊임없이 우리를 맴돈다. 이밖에 사람들은 매일 일을 하면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인적-물적 어려움에 직면한다. 이런 어려움은 우리의 일로부터 그 속에 담겨있는 본질적인 즐거움을 빼앗는다. 마침내 노동은 ‘어려움, 고통’이라는 단어와 동의어가 된다.³⁾ 동시에 그 어려움은 그 일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킨다. 이제 노동은 본질적인 의미와는 상관없이 삶을 짓누르는 짐이 되고 만다. 무엇보다 육체노동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수고 때문에 그것을 회피하고 덜 어려워 보이는 정신노동을 선호하게 된다.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육체노동의 차별이라는 부정적인 현상이 생기게 된다. 이것은 고용과 관련하여 직업차별 등 사회적으로 많은 부작용을 유발한다. 이제 노동은 사람이 과거 언젠가 지은 죄의 결과라는 생각이 ‘주홍 글씨’처럼 우리의 인식에 새겨진다. 그 결과 사람은 자신의 노동에 대하여 긍정적인 사고를 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다. 물론 사람은 일하지 않고 살 수 없다.⁴⁾ 현대 사회에서 노동은 삶 그 자체와 직결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회 문제는 바로 이 노동문제와 직접 연관되어 있다. 더 나아가 그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목적론과도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것은 단지 생활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이다. 즉 심층적으로 ‘인간(Person)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존재론적인 질문과 연관되어 있다. 결국 이것은 사람의 노동에 대한 인식 문제이다. 이것이 변화되면 노동에 대한 시각이 전환되고 그 환경이 변화되며, 궁극적으로 노동의 본래 의미뿐만 아니라 근로자 자신의 올바른 자아(자긍심)를 되찾을 수 있다. 나아

3) 실제로 많은 나라들에서 사용되는 노동이란 용어의 기원을 조사하면 그 기저에 ‘어려움’이라는 개념이 내재해 있음을 볼 수 있다. 참고, 김경일, 『노동』 한국 개념사 총서, (서울: 도서출판 소하, 2014), 53-55.

4) 유토피아(Utopia)의 저자 토마스 모어(Thomas More/1478-1535년)는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고 또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인가의 기준으로 일(노동)의 중요성을 제기했다.

가 이런 인식변화는 작업 환경 및 조건을 개선시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고용 창출’이라는 좋은 시너지(Synergy)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전 세계 가운데 상위권에 있을 정도로 그 규모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세계 여러 나라가 부러워 할 정도로 우리는 외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했다. 장래 남북한 통일을 바라본다면 그 위치는 더 올라간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그 이면에 부정적인 면 또한 만만치 않다. 특히 핵심적인 생산 요소인 사람에 대한 인간론이 매우 취약하다. 지금 우리 경제는 한 단계 도약할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나 사회 내부에 내재하는 부정적인 노동관을 교정하지 않고는 진정한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갈 수 없다. 무엇보다 사회 및 산업현장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정부와 기업, 기업과 기업, 노동자와 노동자 등 경제주체 및 객체사이에 내재하고 있는 주종관계적인 상하지배관계를 교정해야 한다. 이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해 부정적인 인간관을 갖게 만든다. 이밖에 이것은 건전하게 작동되어야 할 노동시장을 심각하게 왜곡시킨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성숙한 ‘노동신학’이 절실히 요구된다. 다음 단락에서 그에 대한 세부적인 신학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동의 가치와 인식을 결정하는 삼 요소를 고려하면서 논의하고자 한다.

3. 구약성서에서의 노동의 가치와 신학적 의미

구약성서에서 말하는 노동의 가치와 인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원천적으로 노동을 구성하는 핵심 삼 요소, 즉 노동하는 사람(인간), 그의 일터(공간) 그리고 쉼(시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노동자에 대하여

노동의 가치를 파악하고 그 본질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노동하는

사람에 대해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노동자가 노동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자, 즉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핵심이다. 이에 성서에서는 사람의 본질과 기원을 창조사건으로 소급한다.⁵⁾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צֶלֶם/첼렘/image)과 모양(דְמוּת/드무트/likeness)을 따라 창조했다는 정언이다(창 1:26). 성경은 세상이 생길 당시 처음에 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있었다고 말한다. 원래 하나님(신)의 형상은 고대 중근동과 이집트에서는 권위의 상징이며 원래 왕의 칭호이다.⁶⁾ 그래서 일반 사람을 감히 신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성서에 따르면 노동자 또한 아담으로서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것은 노동자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다. 이와 관련하여 벤 아자지(Ben Azzazi)는 아담의 계보가 나오는 창세기 5장 1절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이것은 사람(אָדָם/아담)의 혈통의 기록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사람에게로 소급된다.”⁷⁾ 이렇게 창조 기사는 모든 노동자를 아담의 자손으로 보게 한다. 사람들은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왕 이데올로기가 수용되어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성서에서는 고대 근동세계에 편만해있었던 제왕신학의 민주화가 일어났다.⁸⁾ 즉 성서는 이것을 일반화시켰는데 이전에 왕에게만 귀속되었던 세상 통치권을 누구에게나 돌아가게 했다. 이것이 항상 왕권과 연결되어있는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창조전통과의 근본적인 차이이다.⁹⁾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으로 창조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노동자에 대한 인식의 출발점은 이런 창조신학에 자리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신론적인 세계관 아래서의 노동관과 성서적인 노동관 사이에 차이가 있다. 전자에서는 신들과 인간과의 수직적

5) 윤 형, “공동체적인 노동신학의 정립: 지배와 의존의 관점에서”, 『구약논단』 52집 (2014년 6월), 229-232.

6) J. Schabert, *Genesis 1-11* (Würzburg: Echter-Verl., 1983), 45.

7) N. M. Sarna, *The JPS Commentary, Genesis* (Philadelphia: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89), 41.

8) W. H. Schmidt, *Die Schöpfungsgeschichte der Priesterschrift, WMANT 17*, (Neukirchener-Vluyn: Neukirchener Verlag, 1964), 144.

9) U. Rütterswörden, *Dominium Terrae* (Berlin: de Gruyter, 1993), 127.

인 관계가 특징이며 신들은 인간의 노동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다. 거기서 핵심은 신들이 갖고 있었던 ‘노동의 고통을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이다.¹⁰⁾ 그런데 그 고통의 원인은 아무도 알 수 없다. 다만 고통은 노동에 수반된 결과요 숙명으로서 그 해결의 길은 없다. 이런 세계관을 가진 곳에서는 육체노동이 정신노동에 비해 저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거기서는 육체노동자가 자기의 인격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동시에 직업과 직업사이에 차별의식이 있다. 이런 환경에서는 노동자의 의식이 자유로울 수 없고 창조적인 사고를 하기 어렵다. 이것은 정신과 육체가 보이지 않게 날카롭게 분리된 결과로서, 신들의 위치에 앉은 존재에게는 자유가, 인간의 위치에 처한 존재에게는 부자유가 주어진다.¹¹⁾ 이에 반해 성서적인 노동관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다. 이것은 정신-육체노동에 관계없이 한 작업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¹²⁾ 이에 근거하여 신명기 21-25장의 많은 규정들은 특별히 공동체 내에서 주변화되고 약한 구성원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돌볼 것인가를 말하고 있다.¹³⁾ 이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것이다.

한편 예언서로 시야를 돌리면 그 곳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은 기본적으로 공동체적이다. 초기 이스라엘 공동체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편성한 열두 지파가 그 기초를 이룬다(수 7:16-18).¹⁴⁾ 이것은 수직적이기보다는 수평적인 개

10) G. Pettinato, *Das altorientalische Menschenbild* (Heidelberg: Carl Winter, 1971), 21f. H. Ringgren, *Die Religionen des Alten Orient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9), 83-84. Jakob. Wöhrle, "dominium terrae",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Bd. 121 (2009), 184-185.

11) 윤형, "노동의 기원", 『Canon & Culture』 11호 (2012년 4월), 90.

12) 추상적인 하나님의 형상개념이 실제적인 노동개념과 연결될 수 있는 개연성은 하나님이 창조과정에서 보여준 구체적인 노동행위에 근거한다.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다양한 동사를 통해 입증된다. 참고, 윤형,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대한 재고찰", 『구약논단』 50집 (2013년 12월), 117-143.

13) 패트릭 밀러, 『신명기』 (김회권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1), 269-270. 원제는 Patrick D. Miller, *Deuteronom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0).

14) 마틴 노트, 『이스라엘 역사』 (박문재 역),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1), 139-142. 원제는 M. Noth, *History of Israel*, (New York: Harper & Row, 1958).

념이 강하다. 이 지파는 주종관계에 바탕을 둔 지배개념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간에 서로 의존되어 있다는 개념을 갖고 있다. 이런 점에서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는 모세가 정한 율례를 따라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사기에서도 중앙집권적이기보다는 각 지파별로 사사를 중심으로 공동체가 운영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왕이 없기에 사사 중심으로 각 지파가 개별적으로 일을 처리하는데, 중대한 사안일 경우 전 지파를 소집하여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한다(삿 20장). 정치적인 용어를 빌리면 매우 민주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무엘 또한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지파정신을 그대로 이어간다. 그가 백성들이 도입하기 원하는 왕 제도를 반대한 것은 무엇보다 이런 민주적인 지파정신을 상실할 위험이 있어서다(삼상 8장). 사무엘은 자신의 발언을 통해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이 갖고 있는 왕제도의 폐해를 지적하고 있다. 만일 왕을 세운다면 백성이 그의 종(עֶבֶד/에베드)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삼상 8:17). 왜냐하면 왕정조직은 수직적인 신분질서에 기초한 상하 계급사회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¹⁵⁾ 여기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보기보다는 소위 신의 형상인 왕의 종으로 볼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한다. 그럴 경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성서의 원래 개념을 상실하게 된다. 더 나아가 왕국 시대로 눈을 돌리면 솔로몬과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어깨에 짐(עֲבֹד/아보다)을 너무 과하게 올려놓는데, 그 결과 왕국이 분열된다(왕상 12장). 그들이 노동자의 대표자인 여로보암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노동자에 대한 시각을 엿볼 수 있다. 북왕국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 1세는 솔로몬 치하에서 노동 감역관을 맡았다가 솔로몬의 미움을 사서 이집트로 망명을 간 사람이었다.¹⁶⁾ 나중에 귀국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왕의 막후 협상 대화주제 또한 이 노동문제였다. 협상과정을 보면 르호보암과 그 동료들 또한 노동자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지혜로운 원로대신들은 왕이 백성들을 섬길 것(עָבַד/아바드)을

15) 로버트 윌슨, 「사회학으로 읽는 구약성서」 (유윤중 옮김), (용인: 킹덤북스, 2011), 75-76. 원저는 Robert R. Wilson, *Sociological Approaches to the Old Testament*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84).

16) 마틴 노트, 윗글, 267, 각주 72.

강조한다(왕상 12:7). 이것은 왕과 백성이 서로 밀접하게 의존되어있음을 인식하는 말이다. 결국 이스라엘은 왕정제도를 도입함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말했던 것처럼 민주적인 지파체제에서 계급에 바탕을 둔 신분사회로 넘어간다. 이에 신명기 역사서를 보면 많은 왕들이 토라의 정신을 상실하면서 사회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남유다 왕국 말기에 예레미야는 여호야김 왕(기원전 608-598년)의 노동정책이 잘못되었다고 강하게 비판한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있을진저(렘 22:13).” 이 선포의 요점은 왕이 많은 자유시민들을 자기의 궁궐확장과 중건 공사에 임금도 주지 않고 강제로 동원하여 사실상 노예 신분으로 강등시켰다는 사실이다.¹⁷⁾ 이와 관련하여 레위기는 노동자의 임금을 잘 지급할 것을 명령한다(레 19:13). 신명기 24장에서도 품꾼에게 정당한 삯을 줄 것과 그를 학대하지 말 것을 명령한다(신 24:14-15). 이에 반해 여호야김의 아버지 요시아(기원전 640-609년)는 ‘공의와 정의’를 행한 왕으로 언급된다(렘 22:15-16).¹⁸⁾ 남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기원전 597-586년) 또한 노동법을 심하게 어기는 바람에 예레미야의 비판을 받는다(렘 34:8-22). 즉 노예를 소유했었던 귀족들이 얼마 전에 풀어주었던 노예들을 바벨론의 포위망이 잠시 해제되자 다시 노예로 삼아 속박하였던 것이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자기 형제를 종으로 삼을 수 없다(레 25:42). 신명기 15장은 특별히 종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지 자세히 다루고 있다(신 15:12-18). 어쨌든 시드기야는 토라의 노동법을 심히 어겼다. 그런데 그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나라전체가 망할 것이라

17) 로널드 클레멘츠, 「예레미야」 (김회권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0), 210. 원제는 R. E. Clements, *Jeremiah*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88). 신명기 역사가는 여호야김이 많은 양의 은과 금을 이집트에게 조공으로 바쳤다고 보도한다(왕하 23:35). 왕은 일반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은과 금을 강제로 거두어갔다.

18) 박동현, 「예레미야 I」 성서주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660-661. 말하자면 요시아가 아웨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와 올바른 관계를 갖고 긴밀히 사귀는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이 백성 가운데서 힘없는 사람들을 잘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고 선지자는 저주에 찬 목소리로 선포한다(렘 34:17-22).

한편 욥기는 고난과 수고로 점철된 삶에서 지혜를 발견하려는 욥의 치열한 정신노동을 보여준다(욥 28:20, 28). 세 친구들은 그가 평소애 폭리를 취했다, 사리사욕을 채웠다, 또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였다고 비판한다(욥 22 장). 이에 대해 욥은 자신이 종을 다룰 때 그의 인간됨을 인정했다고 말한다(욥 31:15). 이것은 그가 종 또한 자신과 같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비록 외관상 신분은 다르지만 그의 본질적인 격(Person)을 인정하는 것이다. 욥은 많은 다른 고대 근동의 통치자들이 흔히 그렇듯이 자기 종들을 소유물로 대하기보다는 인간으로서 법적 권리를 가진 개인으로 보았다.¹⁹⁾ 그는 이런 인식의 기초가 여호와 경외(אֱלֹהִים/야레)에 있다고 고백한다(욥 31:23). 대표적 지혜문헌인 잠언에서도 욥이 말했던 것처럼 가난한 자와 부자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강조한다(잠 22:2). 따라서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이다(잠 14:31; 17:5). 더 나아가 사람과 같은 날에 창조된 동물에 대해서도 친절하라고 말한다²⁰⁾: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공홀은 잔인이니라(잠 12:10; 신 22:6-7). 포로기 이후 문헌인 느헤미야서에서 느헤미야는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백성들을 압제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느 5:15). 이렇게 구약성서에서 노동자를 바라보는 시각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에 근거하고 있다.

2) 일터 및 환경에 대하여

다음에는 노동자가 일하는 공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제일 중요한 공간은 바로 땅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전통적으로 일터였기 때문이다. 이에 성경에서는 사람이 본래부터 해야 할 일이 나오는데 바로 땅을 경작

19) 진교훈 외, 「인격」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인격의 의미,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09), 400.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영원법과 인간의 이성 따르는 자연법과의 관계를 통해 인간존엄성의 근거를 찾고 있다.

20) 구자용, 아웨, “동물의 주 - 신학적 동물학에 대한 소고”, 「구약논단」, 56집 (2015년 6월), 228-229. 이와 관련하여 신명기 22장 6-7절에 나오는 야생조류 보호법은 참고할 만하다.

하는 것이다. 이것이 본질적인 노동이다. 성경은 고역으로서의 노동 이전에 이미 노동이 있었다고 말해주는데, 이에 그것을 알려주는 창세기 2장 5절과 15절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다.²¹⁾

2:5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2:15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동의 기원문제이다. 즉 창세기 2장 5절에서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그의 목적이 암시되어있다: 땅을 갈 사람. 이어서 2장 7절에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짓는다. 그리고 2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창설한 노동 현장인 동산에서 사람이 구체적으로 할 일도 경작(땅을 가는 일)하는 일이다. 여기서 공통어휘는 땅(אֲדָמָה/아다마)이다. 따라서 사람(아담)과 땅(아다마)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성을 갖고 있다. 또 갈다라는 동사(עָבַד/아바드) 또한 그 본질적인 의미에 따르면 행위주체와 객체가 서로 의존관계가 있음을 나타낸다.²²⁾ 구체적으로 2장 15절은 네 개의 동사를 갖고 있다: חָקַץ(라카흐/이끌어/갈 미완료), נָחַ (누아흐/두어/히필 미완료), עָבַד (아바드/경작하며/갈 부정사), שָׁמַר(사마르/지키게/갈 부정사). 이 문장에 사용된 동사형태로 볼 때 행위의 주체는 하나님이며 사람은 그로부터 할일을 부여받는다. 즉 아담 스스로 자신의 일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아담의 노동은 인간 노동의 원형이다. 이렇게 사람의 일터인 땅은 사람에게 본질적이다.²³⁾ 그런데 땅이란 노동공간에 어려움이 닥친다. 이런 점에서 창세기 3장 17절은 노동에 수반되는

21) 윤형, "노동의 기원", 82-86.

22) I. Riesener, *Der Stamm עָבַד im Alten Testament* (Berlin: Walter de Gruyter, 1979), 46.

23) G. von Rad, *Das Erste Buch Mose/Genesi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6), 67. 폰 라드는 땅과 사람의 떼려야 뗄 수 없는 연대성을 강조한다.

어려움에 대한 원인론적인 성격을 가진다. 무엇보다 남자의 노동이 어려워진 중요한 이유가 나온다. 이를 근거로 노동이 죄의 결과라는 선입견을 갖게 되고 이에 따라 부정적인 노동관을 갖기 쉽다. 하지만 제일 관심을 끄는 부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아담이 직접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창조 될 때 그 재료로 취해졌으며 또 그가 경작할 땅(קִרְכַּס/아다마)이 아담 대신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땅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낱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일반적인 의미로서의 땅(אֲדָמָה/에레츠)이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근원이며 노동의 대상인 경작지(아다마)가 저주를 받는다. 이에 사람의 노동조건이 극적으로 변한다. 그렇지만 저주는 인간에게 의도되었고(창 2:5) 규정된(창 2:15) 원래의 일 자체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노동영역에 임한다. 따라서 노동의 긍정적인 본질²⁴⁾과 부정적인 조건을 분리시켜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구약성서에서 원래 일터는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 일터는 노동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실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난 상황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많은 예언서들이 그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준다. 우선 북이스라엘이 전성기를 누린 여로보암 2세 당시(기원전 787-747년)²⁵⁾ 활동한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상인이지만 속임수를 쓴다고 비판한다(호 10:7). 그는 무엇보다 공의로운 노동환경을 만들어야 할 제사장들, 왕족들, 족장들의 행실이 심하게 왜곡되어있음을 비판한다.²⁶⁾ 최초(기원

24)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면서 세상을 다스리는 일(창 1:28)을 맡긴 다음 그것을 좋다고 하셨다. 그리고 사람이 일할 에덴동산이 창설되는데(창 2:8) 그 에덴(עֵדֵן)은 즐거움을 의미한다. 그런 다음 창세기 2장 15절에서 사람을 에덴에 '둔다'고 하는데 그 동사는 안식과 관련된 동사(נָח/누아흐)이다. 따라서 정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창세기 3장 이전의 노동은 본질적으로 긍정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25) Paul D. Hanson, *The People Called. The Growth of Community in the Bible* (San Francisco: Harper & Row, Publishers, 1987), 149. 한슨에 따르면 여로보암 왕의 시대정황은 약자를 보호해야 할 양이 거꾸로 가진 자들의 대변자가 됨으로써 삶의 터전인 농지를 잃은 농민계층이 빛에 시달려 종으로 팔리게 된 상황이었다고 한다.

26) 장일선, 「히브리 예언서 연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235-236. 호세아는 여호와와 이스라엘 간에 주고받은 결혼 선물로서 여섯 가지 신학적인 주제를 말한다: 공의, 정의, 은총, 긍휼, 진실, 하나님을 아는 지식(호 2:19-20).

전 8세기)의 문서 예언자 아모스도 이스라엘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고발한다(암 2장; 4:1; 5:11; 8:5-6).²⁷⁾ 그는 부요한 압제자들의 탐욕을 비난하는데,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희생시켜 부를 축적함으로써(암 3:10), 건전한 노동환경을 심하게 왜곡시킨다(8:4-6). 무엇보다 아모스는 자신을 목자요 뿔나무를 배양하는 자로 소개하며 육체 노동하는 사람임을 밝힌다(암 7:14). 이에 그는 어느 예언자보다도 억압당하는 빈민들의 곤궁을 잘 파악하여 그들의 입장을 잘 대변하고 있다. 선지자 미가 또한 사람들이 밭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한다고 비판한다(미 2:2). 이에 대해 신명기에서 모세는 밭에서 노동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거두지 말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둘 것을 명하고 있다(신 24:19). 또한 토지소산을 거두고 모든 이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신 26:11-13). 이처럼 토라는 일할 공간에 대해 공의와 정의에 근거한 원칙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준수하는데 실패한다. 특히 미가는 지도자, 제사장, 선지자들이 정상적인 질서가 있어야 할 노동체계를 망치고 있다고 비판한다(미 3:11).²⁸⁾ 이에 그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형식적인 제사는 소용이 없음을 강조한다(미 6:6-8). 이사야 또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사람들이 일할 노동 환경을 공의롭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강하게 비판한다(사 59:4). 이런 부정적인 사회상에 대해 이사야는 인간과 세상만물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유토피아 같은 세상을 그린다(사 11:6-9). 그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싼 주위 자연 환경도 모두 중요함을 역설한다. 에스겔은 거짓목자와 선한목자를 비교하며 여호와께서 공의와 정의를 정립하고 강자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종 다윗을 양떼의 목자 또는 방백(מִשְׁפָּט/나시)으로 세울 것이라고 선포한다

27) 이에 레위기에는 거래할 때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공평한 저울과 추와 예바와 힌을 사용할 것을 주문한다(레 19:36; 신 25:15).

28) 도널드 고웬, 「구약예언서 신학」(차준희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8) 138. 원제는 Donald E. Gowan, *Theology of the Prophetic Book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8). 호세아와 마찬가지로 그는 지도자들을 고발하는데, 특히 정의를 싫어하는 두령과 치리자들을 지목한다(미 3:1,9).

(겔 34:23).²⁹⁾ 이렇게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임무를 갖고 있다(렘 23:25; 렘 33:15). 더 나아가 에스겔은 이상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을 노동공간인 땅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라고 선포한다(겔 47:14). 특히 스가라는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일, 즉 사회적인 신뢰도를 높이라고 말해준다(슥 8:16-17). 이것은 성문 앞에서 행해지는 일상적인 법적재판이나 또는 개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거래에 있어서도 정직과 성실이 전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정직한 노동환경질서이다. 이처럼 예언자들은 지도자들이 일터의 긍정적인 성격을 회복시키도록 촉구하고 있다.

한편 성문서 가운데 시편은 다양한 일터에서 수고롭게 노동하는 시인이 탄식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예언서와 마찬가지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세상을 정의와 공의에 따라 다스리신다고 말한다(시 15:2; 33:5; 72:2; 89:14). 물론 사람의 일은 수고롭다(시 104:23).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탄식적인 상황 하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일을 해나간다. 이밖에 허무감에 사로잡힌 전도자는 성공하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동했다고 말한다(전 2장). 그러나 결국에 남은 것은 ‘바람’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전도자는 노동으로 점철된 삶을 관찰하면 할수록 보상의 신학에만 의존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불일치들이 점점 더 많아짐을 느낀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셨다고 말하는 전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라고 말한다(전 3:22). 또한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해 일하

29) 요셉 블렌킨소프, 「에스겔」 (박문재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227, 248. 원제는 Joseph Blenkinsopp, *Ezekiel*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0). 다윗을 종이라고 칭하는 것은 이사야 42 장 1-4절의 ‘여호와와 종’,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왕권과 관련된 폭력과 자의적인 권력행사를 자행하지 않고 공의를 행할 성령 받을 인물과의 연관성을 보여준다(렘 23:5). 종이란 표현은 존경을 나타내는 경칭이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공직을 입신출세나 지배가 아니라 섬김(아바드)이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시란 칭호 또한 이스라엘이 원래 그랬어야 했던 그런 종류의 공동체에 걸맞은 직임과 지금까지 존재했던 직임(왕)과는 전혀 다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배정훈, “포로이해를 통해 본 예언서의 리더십: 대예언서를 중심으로”, 『구약논단』 61집 (2016년 9월), 186.

라고 강조한다(전 9:10).³⁰⁾ 이렇게 전도서 또한 사람이 하는 모든 노동의 바탕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어야 함을 거듭 강조한다(전 12:13). 시편 127편 1-2절이 말하듯이 하나님의 활동을 배제한 인간의 수고는 공허함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염두에 두게 되면 수고가 기쁨으로 변할 수 있다. 이런 역설과 관련하여 키드너(D. Kidner)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전도서 2장 22-23절의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던 자는 낮 동안의 수고와 밤 동안의 근심에 찌든 나머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남겨두신 단순한 기쁨을 놓치고 만다. 전도서 2장 24-25절이 보여주듯이 그를 괴롭히던 수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의 선물일 수도 있다. 만일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말이다.”³¹⁾ 따라서 수고로운 일은 노동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선한 것이 될 수 있다. 결국 여호와 경외가 시지프스(Sisyphus)적인 노동의 헛됨(הַבְּטָל/헤벨)을 극복하게 한다. 이 또한 노동의 가치를 어떤 관점에서 인식하느냐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편 아가서에서 솔로몬은 곱고 흰 피부를 가진 왕실소녀들보다는 야외에서 노동을 해서 햇볕에 탄 피부를 가진 술람미 여인을 더 사모한다(아 1:6). 이에 블로흐(Bloch)는 햇볕에 탄 피부는 하층민 신분과 관련되어있으며, 고운 외모는 밖에서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의 특징을 드러낸다고 말한다.³²⁾ 또한 솔로몬의 구애활동은 왕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술람미 여인의 노동현장인 야외동산에서 진행된다(아 6:11). 기자는 술람미 여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노동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먼 이방 땅에서 디아스포라로 살았던 다니엘과 그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요셉 또한 자신이 처한 상황의 좋고 나쁨

30) William P. Brown, *Ecclesiastes* (Louisville: John Knox Press, 2000), 95. 브라운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행하는 일의 종류와 그 일로부터 나오는 이익이 아니라, 수고로운 행위 자체에서 발휘되는 고결함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전도서는 노동에서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존엄성을 발견한다.

31) 다니엘 에스테스, 「지혜서와 시편개론」(강성열 역),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7), 426에서 재인용. 원제는 Daniel J. Estes, *Handbook on the Wisdom Books and Psalm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2005).

32) 윌클, 566에서 재인용.

에 관계없이 처한 곳에서 성실히 일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창 39:23; 41:16).³³⁾ 이 밖에 성전에서의 예전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는 역대기에서 찬송과 관련된 레위 우두머리들이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하므로 다른 일은 하지 않았다고 말한다(대상 9:33; 시 134:1; 사 30:29). 이것은 자기 일을 오롯이 소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노동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간접적인 교훈을 준다. 이렇게 여러 성문서는 다양한 삶속에서 일하는 기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현명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노동이 수고롭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수용하는가에 따라 불평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한 노동자가 어떤 세계관(지혜)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노동환경에 대한 가치와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

3) 쉬에 대하여

세 번째는 시간에 대한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동하는 시간이 아니라 노동 이후에 주어지는 쉬의 자유에 대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안식일(אָנִשׁוּ/샤바트)이라는 개념이다.³⁴⁾ 하나님은 창조적인 노동활동 이후 안식했는데 그 점이 매우 독특하다. 과연 노동자는 마음 놓고 쉴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소외되면 노동 자체가 고역이 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쉬이 없는 노동은 앞 단락에서 본 바와 같이 정말 저주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창조기사의 마지막이 안식일의 창조라는 것이 매우 독특하다.³⁵⁾ 그리고 다른 오경 본문에서도 이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할 중요한 시간으로 언급된다. 우선 출

33) 천사무엘, "솔로몬의 지혜서 10장에 나타난 성서해석 연구", 「장신논단」, 47-1 (2015년 3월), 83-85. 이글은 지혜가 요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주었는지 지혜와 요셉의 관계에 대해 흥미로운 해석을 제공한다.

34) U. Cassuto, *Commentary on Genesis I* (Jerusalem: Magnes, 1961), 63. 실제로 그것은 '쉬다'가 아니라 '그만 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것은 일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35) B. Jacob, *Das Buch Genesis* (Stuttgart: Calwer, 2000), 67. 야곱은 이 안식일이 자유의 상징이라고 주장한다. 즉 이 자유는 다른 사람의 노예가 아닌 인간만이 갖고 있다.

애굽 사건 자체가 강제노동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사고에 근거한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³⁶⁾ 바로의 치하에서 강제노동(מַלְבָּד/스발로트)³⁷⁾에 시달렸다가(출 1:11)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곳을 탈출했다는 것이다. 그곳에서는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노동의 가치와 인식이라는 낱말을 언급한다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그곳에서 탈출시켜서 자유인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종(עֶבֶד/에베드)³⁸⁾의 신분에서 구해낸 분이라는 것을 새삼 강조한다(레 26:13). 따라서 출애굽 사건은 노동의 가치와 인식에 대해 말할 때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무엇보다 시내산에서 체결한 언약 가운데 안식일 계명은 바로 노동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안식일의 기원은 창조사건으로 소급된다. 십계명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시행세칙이라고 볼 수 있는 계약법전(The Book of Covenant/출 20:22-23:33)에서도 백성들은 이 안식일을 꼭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출 23:10-13). 또한 성막건설 지침과 그 건설 과정을 편집적으로 연결시키는 것도 바로 이 안식일이다. 즉 안식일(출 31:12-18)기사 다음에 금송아지 기사(출 32:1-34:35)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안식일(출 35:1-3)기사가 나온다. 이처럼 출애굽기는 노동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쉼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이집트 치하에 있을 때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다. 성결법전(Holy Code/레 17-26장)에서도 이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한다(레 23:3, 7, 8). 특히 레위기 23장 3절은 일곱째 날을 쉰 안식일(יְמֵנוּחַ נְאֻם/야마트 야마톤), 즉 완전한 휴식의 안식일(a sabbath of complete rest)로 묘사한다(레 23:24, 32, 39). 동일한 단어를 중복사용해서 그 의미를 강조한다. 이와 관련하여 발렌틴(S. E. Balentine)은 이 안식일의 의미를 창세기 2장 3하반절과 레위기 23장 3절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안식을 세상으로부터의 은퇴가 아니라 미래의 새

36) 이집트는 히브리어로 미츠라임(מִצְרַיִם)이다. 이 말의 어근은 짜라르(צָרַר)인데 이것은 억압, 괴로움, 환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실제로 이집트는 이스라엘 백성의 피와 땀을 짜는 곳이었다(출 1장).

37) 짐을 나름(burden-carrying), 강제 노동(forced labor)을 의미한다. 출 1:11; 2:11; 5:4f; 6:6f.

38) 이 낱말의 어근은 창세기 2장 5, 15절에 나온 아바드 동사이다. 거기서는 사람이 땅에 수평적으로 의존되어 있지만 구약성서에서 계속 등장하는 '중'이란 낱말은 누군가에게 수직적으로 종속된 상태를 표현한다. 또한 이 동사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예배(עָבַד/아보다)라는 낱말이 파생된다.

로운 창조를 가져올 인간적 창조 활동이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휴식이라고 해석한다.³⁹⁾ 특별히 레위기 25장은 안식년에 대해 언급하는데 여기서는 사람이 일하는 공간(땅)에 대해서도 안식하게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⁴⁰⁾ 매 7년마다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땅 또한 일을 하기 때문이다(창 1:11). 레위기 26장에서도 땅의 안식을 강조하고 있다(레 26:34-35, 43). 이것은 노동은 사람만 하는 것인 줄 알고 있는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준다. 이와 관련하여 아주 흥미로운 언급이 있는데, 즉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기간이 땅에게는 안식년이었다고 한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칠십년을 지냈으니(대하 36:21).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치욕적인 포로생활이 역설적으로 땅에게는 쉼 기회가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구약성서는 땅이 행하는 노동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다. 이 밖에 상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도 안식일을 강조한다(민 15:32-36). 특히 절기 중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강조한다(민 28:18; 29:1, 7, 12, 35). 신명기에 나오는 십계명에서도 안식일을 강조한다(신 5:12-15). 여기서 특별히 출애굽 사건을 회상하면서 노동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안식일은 일하는 이들(일꾼 계층)에게 좋은 것인데, 이는 그 관련자들이 쉴 수 있기 때문이다(출 23:12).⁴¹⁾ 그 날에는 모든 사람과 모든 가축들도 일하지 말고 쉬어야 한다(출 20:9f.; 신 5:13f.). 동물이 쉰다는 생각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서 안식일의 의미가 확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과 동물은 공히 여섯째 날에 창조되었는데, 이는 그들의 공통적인 피조성을 강조하는 것이며, 그래서 안식일 역시 동물들에게도 적용된다.⁴²⁾ 성서에서 말하는 안식일의 독특함은 주변

39) 사무엘 발렌틴, 「레위기」(조용식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1), 276-277. 원제는 Samuel E. Balentine, *Leviticus*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2).

40) 김선중, “레위기 25장의 형성 - 안식년과 회년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장신논단」 40-1 (2011년 4월), 105-106.

41) U. Cassuto, *A Commentary on the Book of Exodus* (Jerusalem: Magnes, 1967), 415.

42) 구자용, 아웨, “동물의 주 - 신학적 동물학에 대한 소고”, 209-212.

지역과의 비교를 통해 보다 분명해진다.⁴³⁾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일과 안식이 신들과 인간 사이를 구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신들은 안식을 누리는데 존재들이고 이와 반대로 사람들은 일을 해야 한다.⁴⁴⁾ 신들을 위해 창조된 사람에게서는 강제노동이 어깨에 지워진다. 이는 신들로 하여금 안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이다. 그러나 성서적으로 하나님의 안식은 노동을 마치고 난 후 사람이 안식을 취할 수 있는 모델이 되는데, 로핑크는 이 안식일 계명을 성서적인 노동신학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한다.⁴⁵⁾ 따라서 안식일은 비록 물질적인 창조가 아니지만 중요한 정신적인 자원, 즉 새로운 개념의 시간 창조이다. 세부적인 노동행위인 경작과 관리 규정(창 2:15) 이전에 이미 사람에게 안식이 제시된다. 따라서 사람의 다스림이 하나님을 모범 삼듯이, 그의 노동리듬 또한 그를 지향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모범을 따라 안식일을 준수할 것을 명령한다(출 20:11). 예언자들 또한 토라의 안식일 정신을 받아들여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령한다.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은 안식일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표징이라고 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한다(사 56:2; 58:13; 렘 17:19-27; 겔 20:12). 이 안식일은 쉰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영광스러운 도시요, 과거처럼 다시 한 번 순례의 중심지가 되도록 하시겠다는 그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관련된 미래의 희망의 상징이기도 하다. 이처럼 선지자는 노동과 쉼의 균형성(Work-life Balance)을 강조하고 있다. 포로기 이후 문헌인 느헤미야서에서도 각종 개혁은 노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안식일 계명과 연관되어 언급된다(느 10:31; 13:15-22). 무엇보다 이 날은 할례와 더불어

43) 빅터 해밀턴, 「오경개론」(강성열, 박철현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7), 255. 원제는 Victor P. Hamilton, *Handbook on the Pentateuch*,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2005). 바빌로니아에서는 매달 7, 14, 21, 28일은 재수 없는 날로 생각하고 몸을 사렸다고 한다. 이 날들에 일을 쉬는 것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다만 열다섯 번째 날(*šapattu*/사밧투)에만 일을 쉬었는데 이날 또한 재수 없는 날이었기 때문에 회개 기도를 통해 신들의 진노를 달렸다고 한다.

44) W. von Soden, *Bibel und Alter Orient*, *Altorientalische Beiträge zum Alten Testament* (Berlin: de Gruyter, 1985), 206.

45) N. Lohfink, *Unsere großen Wörter* (Freiburg: Herder, 1985), 190-208.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들에게서 구별하는 표가 되었다.⁴⁶⁾ 이처럼 안식일은 노동에 균형성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 가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4. 현실적인 제안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본 구약성서의 노동신학을 어떻게 우리 현실에 적용할 수 있을까? 우선 성서 첫 머리인 율법서(토라)에서는 노동의 가치 및 인식에 대해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⁴⁷⁾ 노동 인식과 관련하여 창조 때부터 이것은 긍정적이었다. 왜냐하면 창조주 자신이 자신의 노동의 결과에 대해 만족(נוח/토브)을 표현했기 때문이다. 창조와 함께 시작된 인간의 노동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본질적인 활동이다. 무엇보다 기본적으로 노동자를 보는 시각은 하나님의 형상이란 개념과 분리될 수 없었다. 이에 우리 현실 속에서 사용자와 근로자는 상대방을 바라보는 서로의 시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왜냐하면 양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면 상대방에 대한 적대의식이 변화될 것이고, 그 결과 투쟁이 아닌 건설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한편 예언서를 살펴보면 토라의 정신을 이어받지만, 점점 공동체적인 지파체제가 무너지고 신분제도에 기초한 왕국시대로 접어들면서 사회구조가 급격히 변화된다. 이제 노동의 결과물을 놓고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갈등이 첨예화된다. 예언자들의 선포에 따르면 노동과 관련하여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토라에서 말하는 정상적인 규범이 변질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공동체내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의 과정

46) 김동혁, “제30이사야의 안식일 신학: 이사야 56장 1-8절과 58장 13-14절에 대한 주석적 연구”, 『구약논단』 68집 (2018년 6월), 12-16.

47) 토라(תּוֹרָה)는 아라(אֱרֶצְ)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형이다. 아라란 동사는 (돌을) 던지다, (활을) 쏘다, (추춧돌을) 놓다를 의미하기도 하고, 이 밖에 가르치다, 지시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런 점에서 토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갈 방향(지침)을 제시하는 책으로 볼 수 있다.

및 결과를 다루는 데 있어 마땅히 있어야 할 ‘공의와 정의’⁴⁸⁾라는 기본적인 규정 이 왜곡된다. 이에 예언서는 모든 백성의 노동활동이 공의와 정의에 입각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사 28:17; 사 32:17; 렘 4:2; 렘 9:24; 호 2:19; 암 5:24; 미 6:8; 습 2:3; 속 8:8). 이것을 우리 현실에 적용한다면 사용자와 근로자는 각자 수행하는 노동의 전 과정에 걸쳐 ‘공의와 정의’의 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정착된다면 서로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 협상이 보다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다양한 삶을 묘사하는 성문서는 노동의 가치와 인식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율법서와 예언서를 따라가지만 ‘지혜’라는 개념을 갖고 노동문제를 접근한다. 그러나 이 지혜는 땅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지혜를 가리킨다.⁴⁹⁾ 말하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가장 지혜가 있다고 하면서 노동문제를 여호와 경외와 연결시킨다.⁵⁰⁾ 노동의 가치와 인식 문제를 지상과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천상의 여호와 앞에서의 노동으로 승화시킨다. 이에 따르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자기 일을 하는 것이다. 이 또한 매우 중요한 인식이다. 이에 우리 사용자와 근로자는 각기 자신의 일에 대해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일터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

48) 공의란 하나님이 사람에게 기대하는 올바른 삶의 질서이다. 성서에서 말하는 공의는 늘 두 인격체 사이의 의로운 상호 관계를 문제 삼는다. 이렇게 볼 때 공의로운 사람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 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이상적인 형태에 상응하게 처신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에 대해 정의는 질서개념(תקנת/츠다카/Righteousness)보다 재판 또는 중재개념(משפט/미쉬파트/Judgement)이 더 강하다. 미쉬파트의 어근은 사파트(שפט)로서 재판하더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참고, Klaus Bieberstein/Lukas Bormann, *Gerechtigkeit/Recht*, in: Sozialgeschichtliches Wörterbuch zur Bibel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2009), 197–202. 패트릭 밀러, 윌콕, 70. 정의와 관련하여 밀러는 재판의 정의와 순수성은 지도자들의 최고의 덕일 뿐만 아니라 도달하기에 가장 어려운 덕이라고 말한다(신 16:18–20).

49) Erich, Zenger u.a., *Einleitung in das Alte Testament* (Stuttgart: Kohlhammer, 2006), 331. 주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이스라엘의 지혜는 신학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50) D. Kidner, *The Secret of Wisdom* (Achimota: Africa Christian Press, 1987), 68. 기자들의 다양한 삶을 기술하는 성문서 바탕에 깔려있는 신학은 ‘여호와 경외(תורת אלהים/미르아트 아도나이)’이다. 이것은 여호와라는 신적 신비 앞에서의 외경심 또는 두려움이다(잠 1:7; 9:10; 15:33; 욕 28:28; 시 111:10). 이에 여호와 경외는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다. 첫째,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함부로 다가와서는 안 된다(전 5:1–7).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에게 겸손하게 응답하기를 원하신다(전 12:13).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현명하고 관대한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다.

며 그 결과 주위의 노동 환경(쉼을 포함하여)을 건설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5. 나가는 말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노동의 가치와 인식은 기술적(경제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인식론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 말하자면 노동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그 가치와 인식이 달라진다. 노동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상은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것은 세계 그 어디나 마찬가지다. 성서 안에 나타난 사람 사는 세상도 우리가 사는 세상과 별 다름이 없다. 그러나 구약성서가 갖고 있는 노동관을 살펴보면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서 또한 인간이 갖고 있는 모순적인 성격을 인정하고 수용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것을 통제하는 외부 기준이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구약성서는 단순히 사람의 이야기라고만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성서를 종합적으로 관찰하면 노동의 가치와 인식에 대한 인간의 불합리한 관행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어거하려는 다른 반작용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세상 경영방식이다. 이에 구약성서는 우리로 하여금 노동을 새로운 시각에서 보도록 유도한다. 만일 우리가 노동에 대해 이러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된다면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동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소모적인 갈등이 너무 심하다.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인격의 상호 인정, 공의와 정의 의식, 소명 의식)을 구약성서에서 찾아보았는데, 이것을 사회에 잘 적용한다면 노동시장이 건전하게 작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고용 시장을 얻을 수 있다.

6. 참고문헌

구자용, “아웨, 동물의 주- 신학적 동물학에 대한 소고”, 「구약논단」 56집 (2015년, 6월), 205-235.

www.kci.go.kr

- 김경일, 「노동」 한국 개념사 총서, (서울: 도서출판 소화, 2014).
- 김선중, “레위기 25장의 형성 - 안식년과 희년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장신논단』 40-1 (2011년 4월), 95-117.
- 박동현, 「예레미야 I」 성서주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 김동혁, “제3이사야의 안식일 신학: 이사야 56장 1-8절과 58장 13-14절에 대한 주석적 연구”, 『구약논단』 68집 (2018년 6월), 12-16.
- 윤형, “노동의 기원”, 『Canon & Culture』 11호 (2012년 4월), 69-95.
- 윤형, “공동체적인 노동신학의 정립: 지배와 의존의 관점에서”, 『구약논단』 52집 (2014년 6월), 217-243.
- 장일선, 「히브리 예언서 연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 천사무엘, “솔로몬의 지혜서 10장에 나타난 성서해석 연구”, 『장신논단』 47-1 (2015년 3월), 69-95.
- 배정훈, “포로이해를 통해 본 예언서의 리더쉽: 대예언서를 중심으로”, 『구약논단』 61집 (2016년 9월), 168-195.
- 다니엘 에스테스, 「지혜서와 시편개론」 (강성열 역),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7). 원저 Estes, Daniel J., *Handbook on the Wisdom Books and Psalms*, (Grands Rapids: Baker Book House, 2005).
- 로널드 클레멘츠, 「예레미야」 (김회권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0), 원저 Clements, R. E., *Jeremiah*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88).
- 빅터 해밀턴, 「오경개론」, (강성열, 박철현 역),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7). 원저 Hamilton, Victor P., *Handbook on the Pentateuch* (Grands Rapids: Baker Book House, 2005).
- 사무엘 발렌틴, 「레위기」 (조용식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1). 원저 Balentine, Samuel E. *Leviticus*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2).
- 요셉 블렌킨소프, 「에스겔」 (박문재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원

- 제 Blenkinsopp, J., *Ezekiel*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0).
 패트릭 밀러, 『신명기』 (김희권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0). 원제
 Miller, Patrick D., *Deuteronom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0).
- Blenkinsopp, J., *Ezekiel*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0).
- Brown, William P., *Ecclesiastes* (Louisville: John Knox Press, 2000).
- Cassuto, U., *A Commentary on the Book of Exodus* (Jerusalem: Magnes,
 1967).
- Crüsemann, Frank u. a. (Hg.). *Sozialgeschichtliches Wörterbuch zur Bibel*.
 (Gütersloh: Gütersloher, 2009).
- Day, John. Gordon, Robert P. and Williamson, H. G. M. (edited) *Wisdom
 in ancient Israel*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 Hanson, Paul D. *The People Called. The Growth of Community in the Bible*
 (San Francisco: Harper & Row Publishers, 1987).
- Holmgren, Fredrick Carlson, *Israel Alive Again, A Commentary on the Books
 of Ezra and Nehemiah* (Michigan: Grands Rapids, 1987).
- Jacob, B., *Das Buch Genesis* (Stuttgart: Calwer, 2000).
- Kidner, D. *The Secret of Wisdom* (Achimota: Africa Christian Press, 1987).
- Lohfink, N. *Unsere großen Wörter* (Freiburg: Herder, 1985).
- Pettinato, G., *Das altorientalische Menschenbild und die sumerischen und ak-
 kadischen Schöpfungsmythen* (Heidelberg: Carl Winter, 1971).
- REFA, *Methodenlehre des Arbeitsstudiums* Teil I (München: Hanser, 1973).
- Riesener, I., *Der Stamm עבר im Alten Testament* (Berlin: de Gruyter, 1979).
- Ringgren, Helmer, *Die Religionen des Alten Orients* (Göttingen: Vanden-
 hoeck & Ruprecht, 1979).
- Rüterswörden, U., *Dominium Terrae* (Berlin: de Gruyter, 1993).
- Sarna, N. M., *Genesis The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JPS, 1989).

Schabert, J., *Genesis 1-11* (Würzburg: Echter-Verl., 1983).

Von Soden, W., *Bibel und Alter Orient*. Altorientalische Beiträge zum Alten Testament (Berlin: de Gruyter, 1985).

Wöhrle, Jakob, “dominium terrae.”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Bd. 121 (2009), 171-188.

Zenger Erich. u. a., *Einleitung in das Alte Testament* (Stuttgart: Kohlhammer, 2006).

검색어

노동

안식일

지혜

정의

창조

A Study of the Value and Recognition of Work in the Old Testament

Hyung, Youn

Lecturer at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Ruhr-University Bochum Dr; theol.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understand how work is appreciated in the Old Testament. The method of study focuses on the textual interpretation of Hebrew words, and the canonical approach is appropriated for understanding the context. The concept and value of work is a cognitive one, not a technical (economic) problem. The value of work differs according to the perspective through which work is seen. Unfortunately, work is perceived negatively in today's world. However, the Old Testament understanding of work is significantly different. When we consider the ancient writings in general, we find a counter factor to our misapprehensions. Work is an administrative principle within God's world. This study examines three books in the Hebrew scripture, that is, the Pentateuch, the Prophets, and the Writings. First, the Pentateuch presents a direction for the workers, the work environment, and the Sabbath. In this study, we found that workers reflect the

www.kci.go.kr

image of God, which is closely related with the workplace (earth), and that the Sabbath is a key to appreciating the value of work. The Prophets presents the concept of justice, which is another critical factor in valuing work. Finally, in the Writings, fear of the Lord plays a vital role in the work ethic. In conclusion, we found a renewed vision: Fear of the Lord is to be needed for recognizing the value of work rightly.

Keywords

work

Sabbath

wisdom

justice

creation

- 투고일: 2018년 7월 1일
- 심사일: 2018년 7월 9일
- 게재 확정일: 2018년 8월 9일

www.kci.go.kr